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with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3일 (음 11월 2일 戊辰)

Table with columns: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운세 (午, 未, 申, 酉, 戌, 亥). Rows describe fortune for different zodiac signs.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

2015년 극장에 대작이 몰려온다

유하·최동훈 등 스타 감독들 복귀 잇따라 수현·배두나 등 국내 배우들 외화출연도



역대 최대 관객을 끌어모은 '명량'을 비롯해 수많은 영화가 올 한해도 관객을 울리고 웃겼다. 올이년 새해에는 어떤 영화들이 찾아올까.

◇ '스타 감독'들의 귀환

'말죽거리 잔혹사'(2004)와 '비열한 거리'(2006)에 이어 유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거리 3부작'의 완결편인 '강남 1970'이 내년 1월21일 개봉한다.

'도둑들'(2012)로 천만 관객을 모은 최동훈 감독은 1930년대 중국 상하이로 배경으로 벌어지는 암살 프로젝트를 그린 작품 '암살'로 내년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평양성'(2011)의 흥행 실패 뒤 상임연출에서 은퇴한다고 선언했다가 2013년 '소원'으로 복귀한 이준익 감독은 사도세자의 얘기를 재조명한 영화 '사도'를 선보인다.

'쉬리'(1998)·'태극기 휘날리며'(2004)의 강제규 감독은 영화 '장수상회'를 선보인다. 재개발을 앞둔 동태의 '장수마트'를 중심으로 통고집의 까칠한 노인 성철(박근형 분)이 금비(윤여정)를 만나고 벌어지는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영화다.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임권택 감독의 신작 '화장'도 내년 초 개봉한다.

이밖에 박재홍 감독은 임수정·조정석·이진욱 주연의 영화 '시간이탈자'로, 류승완 감독은 황정민·유아인·유재석·오달수 등과 함께한 액션 영화 '베터'로 관객을 찾는다.

정우성은 주연과 제작을 맡은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로 김하늘과 호흡을 맞추고, 전도연과 공유는 금지된 사랑에 빠진 남녀의 얘기를 그린 영화 '남과 여'로 찾아온다.

◇ 국내 배우 출연한 외화 잇달아 한국에서의 촬영과 배우 수현의 출연으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소울'의 속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4월 말 국내에 상륙한다.

이에 앞서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워쇼스키 남매 감독의 '주피터 어센딩'이 내년 2월 국내 관객을 찾는다.

파라마운트 등이 제작한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는 이병헌이 함께한다.

디즈니는 현재 공학도 형제가 만든 건강도우미 로봇 '베이맥스'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를 1월에 선보이는데 이어 동화 '신데렐라'의 실사 버전인 '신데렐라'로 3월 국내 관객을 찾는다.

2NE1 '크러쉬', 롤링스톤 선정 '최고의 팝 앨범 20'

투에니원이 올해 발표한 2집 '크러쉬'(CRUSH)(사진)가 미국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이 꼽은 '2014 최고 팝 앨범 20'(20 Best Pop Albums of 2014)에 선정됐다.

2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크러쉬'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1989', 퍼렐 윌리엄스의 '글'(Girl), 아리아나 그란데의 '마이 에브리싱'(My Everything), 마론5의 'V' 등 세계적인 팝스타 앨범과 함께 뽑혔다.

롤링스톤은 투에니원에 대해 "지난 1월27일(현지시간) 미국 ABC 연례 리얼리티 프로그램 '배틀러'(THE BACHELOR)에 카메라 출연 후 어떤 K팝 아티스트보다 앨범 발매 첫 주 더 나은 행보를 이어갔다"고 소개했다.

앞서 '크러쉬'는 지난 2월 발표와 동시에 각종 차트에서 인기몰이를 했으며 특히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61위를 기록해 한국 가수 사상 앨범차트 최고 기록을 세웠다.



면서 "크러쉬"의 중심은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리더 씨엘의 솔로곡 '멘붕'이다. '멘붕'은 젊은 층이 좋아하는 트랩 그루브와 함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혼합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비트를 이용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크러쉬'는 지난 2월 발표와 동시에 각종 차트에서 인기몰이를 했으며 특히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61위를 기록해 한국 가수 사상 앨범차트 최고 기록을 세웠다.

김수현, 한국갤럽 선정 '올해를 빛낸 배우'

2위 이우리·3위 전지현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출연한 배우 김수현(사진)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선정한 올해 가장 큰 활약을 보인 탤런트로 뽑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9일부터 4주간 전국 만13세 이상 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김수현은 19.6%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 김수현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전지현이 17.6% 지지로 3위를 차지했다. 전지현을 누른 2위는 MBC TV 주말극 '웃대! 장보리'에서 희대의 악녀 연민정을 연기한 배우 이우리(18.2%)가 차지했다.

6년의 공백 끝에 MBC TV '마미'의 시한부 싱글맘으로 돌아온 송윤아가 6.1%의 지지를 받아 4위를 기록했다. 김수현은 2005년부터 매년 그 해를 빛낸 각 분야의 '올해의 인물'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다. 5.9%의 지지를 받은 오연서는 이우리에게 화제 면에서 밀렸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데뷔 후 가장 주목 받았다. 6위는 KBS 1TV 정통사극 '정도전' 속 이성계와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의 아버지 차순봉을 연기한 유동근(5.1%)이 차지했다.

아, 사랑이야' 주인공 장재영으로 분했던 조인성(4.6%)이 차지했다. 8위는 고두심(3.2%), 9위는 김태희(2.7%), 10위는 김희애(2.6%)가 점했다.

갤럽은 2005년부터 매년 그 해를 빛낸 각 분야의 '올해의 인물'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5위는 '웃대! 장보리'에서 주인공 장보리를 연기한 오연서였



연출뉴스